1분기 음료시장 12% 확대

인도네시아 국영은행 만디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생수시장의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량 증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기록했다고 27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생수제조업협회(Aspadin)는 지난 2009년 생수 판매량은 128억 리터 규모였으나 지난해 231억 리터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된 중산층의 증가와 소비자의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로 병에 담겨 휴대가 간편한 물의 수요 급증으로 급속한 판매량 팽창이 낳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생수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최근 몇 년간 외국계 음료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만디리에 의하면 현지기업을 포함, 인도네시아 내에는 600개 생수제조업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는 현지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대기업인 아쿠아 다논이 홀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나디아 꾸수마 만디리 애널리스트는 생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연료비와 임금의 상승 등으로 비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에 2004년 제7호 수자원법의 무효 판결을 내리며 더 이상 사기업의 수자원 직접 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식수사업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업운영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고 깨끗하지 않아 생수시장 규모가 커, 전체 음료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산층의 증가로 인도네시아 생수 및 음료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짐

자료 : Jakarta Biz Weekly(2015-05-29)